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전반기 방 생활에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7월21일(월)에 이음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 10여명이 방문합니다.
- 생활공동체 전체 모임이 26일(토) 오후 6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여름 공동체생활이 7월31일(목) ~ 8월3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이종옥 집사 가정 (엄마 기일)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9 호

2025년 7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방공동체 소감문

이번에 사랑방공동체를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은 단순한 체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사실 이 공동체를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보고 알아봤지만 하나의 꿈 이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하면서 보니, 진짜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하고,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며 말씀과 기도로 공동생활을 실천하는 그들의 삶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다.

처음 갔을 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공간이었는데, 금방 포근함으로 반기는 사람들과 따뜻한 분위기로 나를 맞이해 주셨고, 이 안에서 경험한 공동식사와 공동생활, 다양한 활동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들었다.

강압하지 않는 새벽기도 예배 등 자유로운 예배생활은 평소 일반 교회와는 다른 자유로움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 여러 활동을 비가 와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밖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등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청소, 요리, 설거지와 같은 일상의 노동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며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공동체 식사는 따뜻함을 나누는 디아코니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귀빈 손님 대접으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는데, 그 섬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만큼 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모습이였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랑방 공동체학교였다. 이 학교는 유치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이어지는 대안교육의 장으로, 공동

체와 자연, 놀이, 삶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이었다. '멋쟁이학교'라고 불리는 이 학교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시험 성적이나 입시 결과보다도 아이들의 인격과 공동체성,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이 훨씬 더 중시되고 있었고, 이런 지향점이 정말 건강한 지향점이라고 느꼈다. 나도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서 이들의 이런 교육 철학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각 반끼리 여행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발표회를 가져 참관해 지켜보았는데, 그 여행의 시간들을 보며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귀한 공동체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해지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사랑방공동체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머물면서, 마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경험한 듯한 생생한 체험이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다. 공동체적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길임을 이곳에서 배웠다.

사랑방공동체에서 느낀 배운 점, 신학, 신앙을 가지고 잘 참고해 내 훗날의 목회 사역에도 이러한 공동체적 사역이 중심에 깃들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려 한다. 공동체에 끈끈함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회복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신 사랑방공동체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고등부 아이들,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기를 꿈꾼다.

한주간의 말씀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20, 397 / 435
기도 :
성경 : 민수기 26장
제목 : 모압평지에서의 인구조사

1-51 모압평지에서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해석: 하나님의 명령(뜻) 가운데서 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갈때, 믿음 안에서 상황을 점검하자.

52-56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해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실 때 공정하게 하셨다.
적용: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게 받고 검소하게 살자.

57-62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
해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 대대로 기억하여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63-65 시내광야와 모압평지에서의 인구조사
해석: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인구는 큰 변화가 없고 믿음 안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적용: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자.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자.

포천천 살리기

포천에 이사 와서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포천천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포천에 소규모 염색공장과 가죽제품공장이 많아서 오염된 폐수가 커다란 하수관으로 배출되기도 하였고 군청에 가서 얘기해도 군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어린이학교 환경수업을 맡아서 아이들과 포천천이 시작되는 송우리부터 38휴게소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둘러봤던 일도 있었습니다.

포천천은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30km의 하천입니다. 또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포천의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포천에서 시작해서 포천에서 끝나는 하천입니다. 포천천 살리기를 하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보았으나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했던 분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ㅎㅎ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느끼면서 포천천 살리기를 하자는 호응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포천천 살리기는 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포천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포천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면 포천시민으로서 만족도나 자긍심이 높아지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거라 기대합니다.

단체나 개인마다 일정 구간을 정해서 주고 자신들이 맡은 구간에 어떤 식물이 살고 새가 날아오고 물고기가 사는지,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관리한다면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희망해 봅니다. 포천천에서 족대 들고 아이들과 물고기 잡을 날을 기대합니다.

새싹사랑방 한호남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밭에 봄에 늦게 심어 기른 밀을 거두었습니다. 가을이 아닌 봄에 그것도 많이 늦게 심어서 과연 여무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방학 전에 거두었습니다. 화요일에 정혜정권사님 도움으로 밀을 맛보았습니다. 베어낸 밀을 그대로 석쇠 두 장 사이에 끼워 불에 살살 굽고 봉지에 담아 비비고 알곡을 골라 먹어보았습니다. 후후 불어 껍질을 날리면 쉬울텐데 비가 와서 자연예배당에서 굽고 손으로 헤쳐가며 찾고 껍질이 남은 건 일일이 까서 맛보았습니다. 한 알씩 집어먹으니 나쁘지 않았을 뿐 딱히 무슨 맛이라 할만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합니다. ○○는 친구들이 놀기 시작한 뒤에도 남아 알곡을 찾고 그걸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굽는 김에 공동체밭에서 잘 익어가는 강남콩도 열 꼬투리 따다가 같이 구워서 맛보았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학부모 면담을 했습니다. 꾸러기들이 집과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부모와 교사에게 남겨진 과제도 점검해보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들이지만 신앙안에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방학입니다. 모두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여름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웃고 울던 면담을 마치고 화요일 드디어 방학을 맞았습니다.

방학 날을 맞아 아침부터 상기된 얼굴로 학교에 등교한 우리 어린

이들은 오전엔 카나페 만들기와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또 오후엔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지난 3월 여행 피드백 때 한 학기를 시작하며 각자 했던 다짐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는 모임 시간에는 7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하고 간단한 시상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날은 하루의 일정 뿐 아니라 한 학기동안 수고하고 방학을 맞는 어린이들을 위해 베다니하늘주방 요리선생님들은 맛난 파스타로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시고 오후엔 여러 어머니들께서 오셔서 간식으로 피자빵도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방학을 시작한 어린이들은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모여서 놀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잘 보내고 반갑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대망의 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기말 학부모면담은 멋쟁이가 한 학기 동안 어떤 변화와 성장을 거쳤는지 함께 대화하는 장입니다. 학교에서는 멋쟁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상황을 알 수 있고, 가정에서는 멋쟁이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중요하고 또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내고, 또 발휘해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기쁜 일도 드물답니다.

현재 많은 멋쟁이들은 방학을 맞이하여 휴식, 공부, 운동, 여행 등 등 다채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휴식을 포함하고 있는- 스스로 세운 방학 계획을 잘 지켜내서, 자율성 또한 길러내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덥고 비가 많은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하세요~

< 교사 : 이어진 >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요즘 곳곳에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많다는 소식을 접한다.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도 쏟아지는 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남편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쏟아지는 비가 무서워서 서둘러 집에 들어오셨다고 한다. 이런 날씨를 보면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이런 말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를 뛰어넘어 '지구 열대화' 상태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조사결과 에어컨 4등급, 세탁기 2등급, 김치냉장고 3등급, 제습기 1등급이었다. 에어컨을 살 때 들었던 '예전 등급으로 1등급인데 조정이 돼서 4등급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조사결과에 실망한 느낌이었다. 두 번째는 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비닐이 가장 많았고, 그 중 대부분은 식품 포장지였다. 마지막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천할 내용이었었는데, '에어컨을 많이 켜지 말자'와 '샤워를 짧게 하자'로 정했다. 나는 '티비 시청을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그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로 학교에서 '밀랍랩'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다. 손수건만한 천에 밀랍을 녹여서 굳힌 것으로 일회용 랩 대신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집에서 남은 채소를 밀랍랩으로 싸서 보관했는데, 밀랍에 천연 항균성분이 있다고 하니 왠지 더 싱싱하게 보관되는 느낌이다.

나 나름대로는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외출할 땀 물통을 챙기고, 유튜브 화질은 데이터 절약 모드로 바꾸고, 이메일도 자주 정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물티슈를 끊기는 아직 좀 아쉽고,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다.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지구를 위해서 불편하고 귀찮은 것을 좀 더 참아보자 다짐해본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36장, 218장

성경 : 고린도후서 5장 16-21절

말씀 :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절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최근 군사 행동은 단순한 국경 방어를 넘어 정치적 복잡성이 얽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레바논 동부와 시리아 남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연정 균열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군사작전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오두막 공동체>

-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도록
- 강제 변화가 아닌 수용과 공존의 문화가 더 깊어지도록
- 자발적 가난과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방학을 맞는 지역별사랑방과 공동체 학교를 위해
- 2) 여름공동체생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학교들은 방학을 했지만 학부모 면담에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에 공동생활 식구들은 쉴 틈 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재정비할 때 여러 손길들이 힘을 써줘서 무거운 짐기들을 나르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부 지방에 내린 큰 비로 인해 다른 공동체들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공동체들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또 이 비가 그쳐서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